

헝가리, IMF 구제금융 요청과 협상 난항

1. 헝가리 IMF 구제금융 요청과 그 배경

□ 헝가리, IMF 구제금융 요청

- 헝가리정부는 2011년 12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으며 신축적 공여제도(Flexibility Credit Line, FCL)¹⁾를 통한 차관 수혜를 희망함.
- 헝가리는 2008년 11월 IMF의 대기성 차관을 통해 SDR105억(157억 달러)를 지원받았음. 이후 2010년 10월 동 차관지원이 종료되면서 경제는 상당히 호전되어 왔음.
- 2011년 하반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헝가리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, 재정 관리성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헝가리 경제도 악화되었고 이번에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함.

□ 헝가리의 거시경제 상황 악화

- 2011년 11월 이후 유로존 국가의 경제상황 악화, 경제 저성장 지속, 대외 신뢰도 저하 등으로 헝가리의 통화가치는 급락하였고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외환 · 금융시장 불안이 증대됨.
- 유로존 국가들은 긴축재정 정책 시행, 경제정책 운용의 한계 등으로 경제상황의 급격한 회복이 어려운 가운데, 대외의존도가 높은 헝가리 경제는

1) 협의한 금액 한도안에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고 자금지원에 따른 사후 이행 조건이 없는 금융지원

대외요건의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.

- 헝가리는 내수위축, 수출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여 2012년 성장률이 -0.7%로 예상됨.
- 무디스와 S&P는 2011년 11월 24일과 12월 21일에 헝가리 신용등급을 각각 Baa3에서 Ba1로 BBB-에서 BB+로 하향 조정하였음.

2. IMF 구제금융 진행과정과 시사점

□ IMF의 구제금융 지원은 불투명한 상태

- IMF의 구제금융이 성사 되지 않으면, 헝가리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비용 증가, 만기 도래되는 대출금 상환 압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.
- 헝가리가 일각에서 우려했던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앙은행법²⁾을 통과시키면서 IMF와의 구제금융 협상이 중단되었으며, IMF는 헝가리 정부의 경제정책의 개혁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.
- IMF와의 협상 중단으로 포린트화 가치가 사상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최근 2년간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헝가리정부는 IMF와의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중앙은행법 재검토 등 IMF의 요구 조건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관측됨.

□ 헝가리 경제의 회복 요건

- IMF는 경제 안정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헝가리정부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없으며 재정수지 적자관리 등이 이번 구제금융 지원 협상을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언급함.

2) 총리가 임명하는 중앙은행 부총재 수를 확대(2명→3명)하고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 수를 증가(7명→9명)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여당과 정부의 권력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임.

- 헝가리정부는 1989년 민주주의 제도 도입 이후 포퓰리즘적 정책을 추구하면서 정부채무가 급증하였으며, 2010년 오르반 빅토르 내각은 재계와 사법부를 장악하고, 2011년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등 정치적 불안성이 고조되고 있음.
- 특히, 유럽 재정위기로 EU회원국의 재정상황과 채무관리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헝가리도 재정수지 적자 개선, 외채상환능력 제고 등의 당면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임.
- EU와 헝가리간의 경제관계의 민접성으로 상호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번 헝가리의 IMF협상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헝가리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음.

조사역 서은주(☎ 02-3779-5712)
E-mail: seoeunchu@koreaexim.go.kr